

이상원 | 외환분석부장 (제 7086)

- 주요 뉴스: 미국 2월 고용보고서(비농업고용 +15.1만, 노동시장의 완만한 둔화 시사)
 - 파월 의장 등 연준 주요 인사들, 미국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자신감 표명
 - 유로존 '24년 4분기 GDP 성장률 소폭 상향(예비치 +0.1% → 확정치 +0.2%)
 - 중국 1~2월 수출(+2.3%)과 수입(-8.4%) 모두 큰 폭 둔화
 - 국제금융시장: 연준 파월 의장 발언으로 미국 성장세에 대한 신뢰 일부 회복 등
 - 미국 주가 상승[+0.6%], 달러화 약세[-0.2%], 미국 금리 상승[+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연준 파월 의장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진단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(금년 첫 주간 하락)
 - 환율: 달러화지수, 미국 2월 고용지표 부진 등을 반영하면서 소폭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4% 상승, 엔화 가치는 0.04% 하락
 - 금리: 미국(10년물)은 파월 의장 발언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상승
독일은 대규모 재정부양책 발표에 따른 급등 여파가 이어지면서 1bp 상승
- ※ 뉴욕 1M NDF 증가 1445.2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7.8원, 0.1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		3/7일	3/6일	전일대비			3/7일	3/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770.2	5,738.5	+0.55%	국채 금리 10y	미국	4.30%	4.28%	+2bp
	유럽	553.35	555.90	-0.46%		독일	2.84%	2.83%	+1bp
	중국	3,372.5	3,381.1	-0.25%		영국	4.64%	4.66%	-2bp
	일본	36,887	37,705	-2.17%	CDS 5y	한국	31bp	31bp	0bp
	한국	2,563.5	2,576.2	-0.49%		중국	47bp	48bp	-1bp
환율	달러지수	103.91	104.06	-0.15%	위험 지표	EMBI+	-	375bp	-
	유로화	1.0833	1.0785	+0.45%		VIX	23.37	24.87	-6.03%
	엔화	148.04	147.98	-0.04%		WTI유	67.04	66.36	+1.02%
	위안화	7.2440	7.2423	-0.02%	원자재	구리	468.3	477.9	-2.01%
	원화	1,449.5	1,445.8	-0.26%		금	2,909.1	2,911.8	-0.0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2월 고용보고서, 노동시장의 완만한 둔화 시사

- 노동통계국(BLS)이 발표한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(nonfarm payroll)는 15.1만명으로, 전월(12.5만명)에 비해 증가했으나 예상치(Bloomberg 16.0만명)를 하회. 실업률의 경우 4.1%로 전월(4.0%) 대비 상승하면서 예상치(4.0%)를 상회
- 이에 대해 Economic Outlook Group은 “노동 시장의 바람이 바뀌고 있다”고 평가했으며, BMO Capital Markets은 “1분기 미국 노동 시장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시사하지만, 아직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”고 진단
- 한편, 뉴욕 연은의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(Nowcast)는 2/28일 +2.94%에서 3/7일 +2.67%로 하락했으며,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에 미친 영향은 -0.09%p, 실업률의 영향은 -0.04%p로 제시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주요 인사들, 미국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자신감 표명

- 파월 의장,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 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미국 경제는 그 정책들의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
-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,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해 분석한 결과, 전반적인 수준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고 물가 충격 발생 시 그 영향이 길게 지속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, 인플레이션 기대가 불안정해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

■ 유로존 '24년 4분기 GDP 성장률 소폭 상향 조정

- Eurostat이 발표한 유로존 '24년 4분기 GDP(확정치)는 전분기 대비 0.2% 성장하면서 예비치(+0.1%)를 소폭 상회. 금번 조정은 대부분 아일랜드 GDP 성장률 상향(예비치 -1.3% → 확정치 +3.6%)에서 비롯했으며 대부분 국가의 수치는 불변

■ 중국 1~2월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둔화

- 해관총서가 발표한 1~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.3% 증가(위안화 기준으로는 +3.4%), 수입은 8.4% 감소(-7.3%). 주요 특징으로는 △일반무역 감소 및 가공 무역 증가 △對ASEAN·미국 무역 증가 및 對EU·한국 무역 감소 등

- Capital Economics는 1~2월 중국 수입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말 발표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이미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. HSBC는 미국의 對中 관세 추가 인상 등으로 향후 수개월 간 중국 무역 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

■ 캐나다 2월 실업률 불변, 고용자수 큰 폭 감소

- 통계청(Statistics Canada)이 발표한 2월 실업률은 6.6%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예상치(6.7%)를 소폭 하회. 다만, 고용자수는 0.1만명 증가(직전 3개월 평균은 +7.0만명)하는 데 그치는 등 미국發 관세 위협에 따른 고용 둔화를 시사

■ 영국 2월 주택가격, 예상 외 하락

- 헬리팩스는 2월 영국 주택가격지수(Halifax House Price Index)가 전월 대비 0.1% 하락한 것으로 발표(Reuters 예상치 +0.3%, 1월 +0.6%)하면서, 인지세(stamp duty ≡ 취득세) 혜택 종료(3.31일) 임박을 앞둔 주택 매수세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

■ 폴란드 재무장관, 성장 촉진을 위한 금리 하락 필요성 강조

- 도만스키 재무장관, 재무장관으로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*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, 현재 폴란드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과 투자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볼 때 더 낮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언급

* 폴란드 중앙은행(NBP)은 '23년 10월 이후 정책금리를 5.75%로 유지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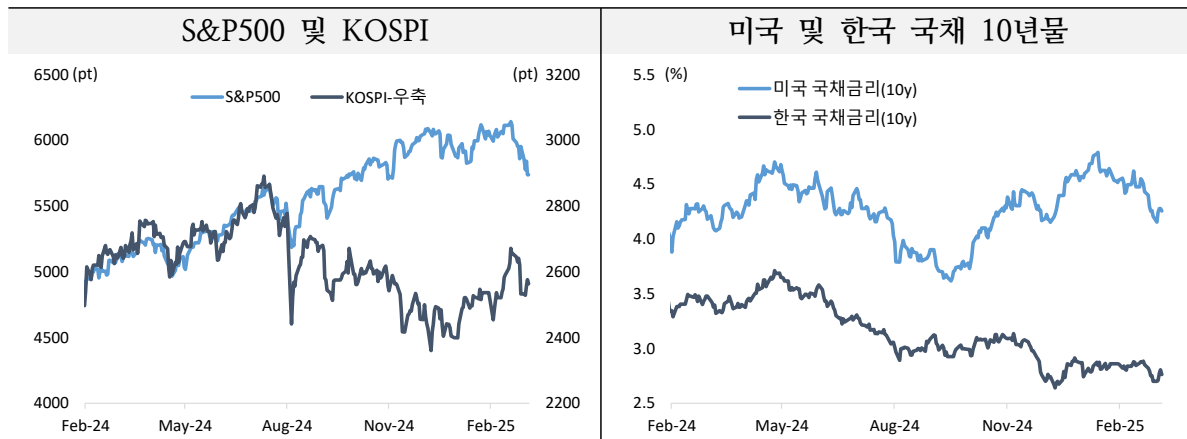
■ 태국 인플레이션, 3개월 연속 목표 범위 내 유지

- 상무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년 동월 대비 1.08% 상승(근원 인플레이션은 +0.99%). 이는 1월(+1.32%)보다 둔화된 수치이며 식음료 가격 및 유가 하락에 기인. 무역정책전략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태국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(1~3%) 하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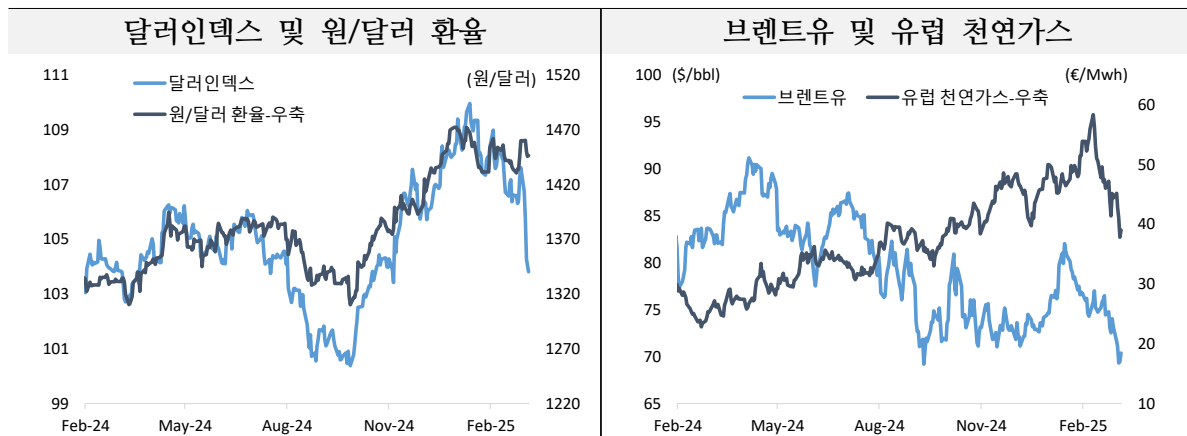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독일 1월 산업생산(Bloomberg 전망치 +1.8%_{mom}, '24.12월 -2.4%), 일본 1월 경상수지(전망치 ¥0.23조 적자, '24.12월 ¥1.08조)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예정
- 중국의 對美 보복관세 인상 발효(석탄·LNG 15%, 원유·농기계·대형차·픽업트럭 10%). EU 재무장관 회의(브뤼셀,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이 주요 의제) 예정(현지 시각 3.10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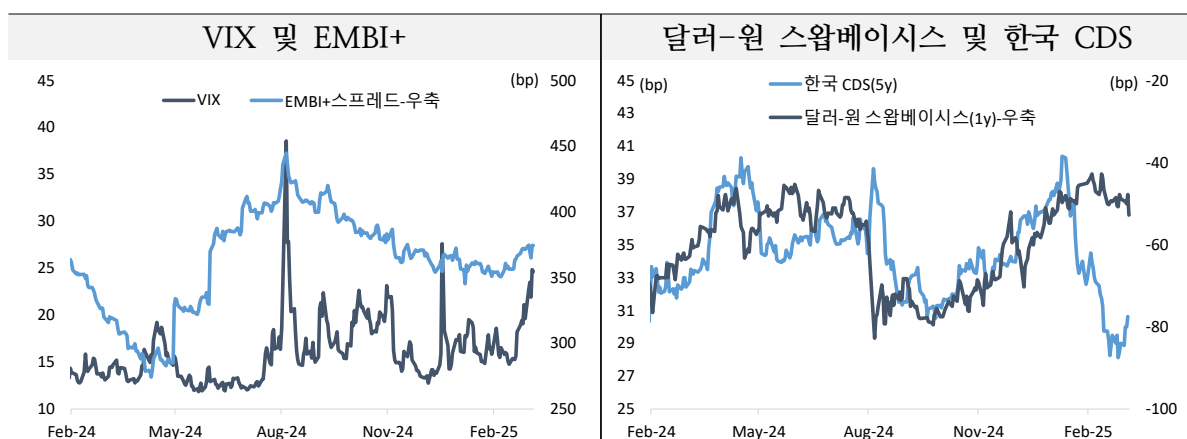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